주연 남녀의 남다른 케미 … "로코는 호흡"

내려놓은 이나영·만화 같은 이종석 … '로맨스는 별책부록'
사랑스러운 유인나·까칠한 이동욱 … '진심이 닿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이나영·이종석

'진심이 닿다'의 유인나

나이 차가 열 살이 나도, 한 번 봤던 커플이라도 상관없다. 로맨틱코미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흡'이다.

최근 tvN이 나란히 내놓은 주말극 '로맨스는 별책부록'과 수목극 '진심이 닿다'가 주연 남녀의 남다른 '케미'(케미스트리·조화)에 힘입어 잔잔한 호평을 받는다.

◇ 10살 차이 이나영-이종석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이나영(40)의 9년 만 안방 복귀작이자 10살 연하인 이종석(30)과의 호흡으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나이 차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초반부터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사이 아내이자 엄마가 된 이나영이 나이 차가 꽤 나는 이종석에게 어울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젊고 예쁘게 보이려 애쓰지 않는 게 주효했다.

이나영은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지만 결혼과 출산 후 경력단절 여성이 됐고, 이혼 후 출판사 업무지원팀으로 겨우 재취업한 강단이를 현실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그려낸다. 단이는 집도 절도 없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도 장애물의 연속이지만 절대 궁상맞지 않다. 친동생 같은 동생 차은호(이종석 분)를 대할 때도 억지스러운 애교보다 친근함과 설렘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나영이 단이를 통해 현실과 로코 사이에서 톤을 조절해주는 덕분에 이종석은 좀 더 로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은 어릴 적 단이가 자신을 구해준 이후부터 줄곧 누나밖에 몰랐지만, 그만큼 소중하기에 자신의 마음을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멋진 놈'을 마음껏 멋있게 연기 중이다. 티격태격하는 '현실 동생'이면서도 사실상 단이에게 키다리 아저씨와도 같은 분위기를 잘 살려 로코의 설렘을 확보했다.

기대 이상인 두 사람의 호흡에 더해 또 다른 연하남 지서준 역의 위하준, 은호를 오래 짝사랑해온 송해린 역의 정유진은 작품을 더욱 풋풋하게 만든다. '서브'로서 유발할 수 있는 짜증스러움도 두 사람에게는 없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아울러 오피스 로코 흥행의 필수 요소인 오피스 내 팀워크까지 갖췄다. 싱거운 듯 듬직한 대표부터 단이를 괴롭히지만 결국 편이 돼줄 것 같은 이사, 팀장들, 그리고 특징 뚜렷한 입사 동기들까지 골고루 극을 받치며 시청률이 5%(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돌파하는 데 일조했다.

◇ 재회한 유인나-이동욱 조합 눈길

사랑스러운 유인나(37)와 까칠한 매력의 이동욱(38), 이 조합을 두 번이나 보면 질리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

2년 전 드라마 '도깨비' 속 써니와 '진심이 닿다' 속 오진심은 솔직히 꽤 닮았다. 꼭 유인나가 연기해서가 아니라, 공주병이지만 밉지 않고, 푼수 같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똑 닮았다. '도깨비' 마지막 회에서 배우로 환생한 써니가 오진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두 번 봐도 사랑스러울 정도로 유인나는 이런 캐릭터에 '찰떡'이다.

진심은 변호사 역으로 연예계에 복귀하기 위해 로펌에 임시 취업했지만, 기본적인 전화 내선 연결과 복사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오정록(이동욱 분)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결코 풀 죽지 않은 그는 결국 정록이 백기를 들고 자신을 파트너로 인정하게 만든다.

매 순간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유인나 옆 차분하게 까칠한 이동욱은 극의 균형을 잡는다. 로코가 시종일관 발랄하기만 한다면 설렘 여유가 없겠지만, 이동욱의 차분한 연기가 유인나의 애교 연기와 조화를 이루며 충분히 설렘 시간도 선물한다.

사실 '진심이 닿다'는 로코극 치고도 결말은 뻔한 축에 속한다. 시청자는 제목처럼 진심의 진심이 결국 정록에게 닿아 두 사람의 사랑이 이뤄질 것을 안다. 또 진심은 화려하게 오윤서로 복귀할 것이다. 결말을 알기에 시청자는 오히려 아기자기한 과정에 집중하며 로코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시청률도 4%대에서 순항 중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13일 "로코는 장르 특성상 극의 중심에 있는 남녀 주인공의 연기 호흡이 매끄럽지 않다면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기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극 외적인 호흡도 중요한데, '진심이 닿다'는 전작 '도깨비'에서 완성되지 못한 이동욱-유인나의 애틋한 관계가 기대심리로 작용하고,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이나영에 대한 이종석의 오랜 팬심과 9년 만에 복귀한 이나영의 망가지는 연기가 어우러져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미국 방송 데뷔 '뚜두뚜두' 열창

그룹 블랙핑크〈사진〉가 미국 CBS 심야 토크쇼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출연해 현지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

블랙핑크는 최근 뉴욕 맨해튼의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 진행된 생방송에서 히트곡 '뚜두뚜두' 무대를 선보였다.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무대에 앞서 "널리 사랑받는 K팝 그룹 블랙핑크가 무대를 펼친다. 오늘 밤 미국 방송에서 처음 데뷔하는 것"이라며 "큰 박수로 환영해달라"라며 이들을 소개했다.

무대가 끝난 뒤 스티븐 콜베어는 "올봄 열리는 블랙핑크의 첫 번째 북미 투어에서 멤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랙핑크가 직접 팀을 소개하는 순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에드 설리번 극장 앞에 수많은 팬이 몰려 '포에버영', '휘파람', '붐바야'를 불렀다. 또 생일을 맞은 로제를 위해 생일축하 노래도 불렀다"라고 전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9일 미국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주최한 쇼케이스에서 음악산업 종사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했다. 오는 12일 미국 ABC 아침 뉴스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15일 낮 프로그램인 '스트라한 앤드 사라'에 출연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싱가포르,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공연한 뒤 북미, 유럽, 호주에서 팬들과 만난다.

미국에서는 오는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4월 24일 시카고, 4월 27일 해밀턴, 5월 1일 뉴어크, 5월 5일 애틀랜타, 5월 8일 포트워스를 찾는다. 4월 12일과 19일 미국 대표 음악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한다.

/연합뉴스

강호동·이수근, 채널A 오피스 예능 '굿피플' 진행

'굿피플'의 MC 강호동(왼쪽)과 이수근.

강호동과 이수근이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인 채널A 새 예능 '굿피플'에 합류한다.

채널A는 강호동과 이수근이 사회초년생들의 성장기를 그린 오피스 리얼리티 예능 '굿피플'의 MC를 맡는다고 13일 밝혔다.

'굿 피플'은 채널A의 간판 예능 '하트시그널'을 만든 제작진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변호사를 꿈꾸는 청춘들이 일정 기간 인턴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왼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40 MBC PICK X 14F 55 5 MBC 뉴스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강진〉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설 기획 영상앨범 산(재)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왼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왜그래 풍상씨(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조소앙〉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통일이 된다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찰밥과 즉석 순두부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카 폴리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당신이 꿈꾸는 그 곳 콜롬비아 4부 카리브해의 숨은 보석 카르타헤나〉
21:30 한국기행 〈한반도 평화기행 -그리움의 맛, 인제 속초〉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4일(음 1월 10일 壬午)

子 36년생 진지하게 논의 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 48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60년생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하다. 72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다가는 큰일 나게 된다. 84년생 풍부한 식견과 다각적인 고찰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5, 32

丑 37년생 해묵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 49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니까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61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73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함만 못 하느니라. 85년생 허탈해 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02

寅 38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편함이 사라진다. 50년생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62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74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86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8, 22

卯 39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51년생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목적에 부합하리라. 63년생 살피고 있는 것보다는 실행이 더 생산적이다. 75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확실히 대비해야만 한다. 87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1, 34

辰 40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52년생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76년생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88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72, 04

巳 41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53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65년생 일부분부터 윤곽이 나타나리라. 77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9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 행운의 숫자 : 92, 59

午 42년생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54년생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때이다. 66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 둬야 한다. 78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로다. 90년생 실행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행운의 숫자 : 18, 66

未 43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자. 55년생 부담스러운 짐을 덜어 주는 이가 생기겠다. 67년생 막힘이 많다. 79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91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가닥을 잡게 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57, 99

申 44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56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68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형국이니라. 80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92년생 방심한다면 용두사미가 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07, 10

酉 45년생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보자. 57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오랜 세월 동안 성가셔 왔던 문제가 해결 되는 성국이니라. 81년생 처지와 분수에 맞아야만 유용하리라. 93년생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합적이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7, 54

戌 34년생 과정에 충실 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46년생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다. 58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70년생 근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길성을 만난다. 82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54

亥 35년생 가능성은 농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47년생 방도와 혜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59년생 대체할 형편에 놓인다. 71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83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더 요청 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5, 5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